



예수 성탄 대축일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공동체 소식

경 예수 성탄 축
세상에 빛을 밝히려 오신 주님의 성탄을 경축합니다.

성인 세례성사 공지

- 일시: 2017. 1. 1 (주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중.
- 대상: 김태선, 김태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거주).

출리 트리니티 본당 신부님의 성탄절 선물에 감사합니다.
동양슈퍼마켓 사장님의 성탄절 선물에 감사합니다.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와 행사 안내

- 12/24(토) 오후 07:30 - 구유경배 예절 및 밤 미사 (매일미사 121쪽).
- 12/25(주일) 오전11:00, 낮 미사 - 성탄선물 봉헌 (매일미사 135쪽), 미사 후 성탄잔치 - 음식나눔 잔치와 선물나눔 행사.

성탄절 선물 나눔

- 방법: 12/25(주일) 미사 중 봉헌, 미사 후 나눔.
- 유아 및 학생들을 위한 선물기증: 김호원 요한 전회장.

송구영신 미사

- 일시: 12/31(토) 오후7:30

예수 성탄 대축일(12/25)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애찬조

- 성탄절: 행사 1조
- 1/1 대축일: 행사 2조

2017년도 매일미사책을 주문 바랍니다.

- 안내: 자세한 사항은 전례부 봉사자들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과 건축보수기금의 완납을 위해 성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2/24	99,102	110	163	484
12/25	103	107	175	101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12/24 (토)	정예찬 미카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12/25 (일)	차민서 임마누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정예진 한나	문호진 안토니오
	문예나 요안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12/24 (토)	정수한 베드로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12/25 (일)	최은미 아네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애찬 봉사자

금주	성탄절 잔치, 행사 1조.
차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잔치, 행사 2조.

헌금 봉사자

12/24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12/25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1/1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18	50명	223불	2,090불
고영방, 박희영, 김대연, 김화년, 정석원, 김병철, 김정원, 이우석, 정연숙, 조지연, 김호원 (총 11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150불, 총합계: 9,550불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예수성탄 대축일 밤미사

오늘의 전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이 밤, 하늘의 군대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강생의 신비를 다시 묵상하는 이 밤,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우리도 천사들과 소리 맞춰 구세주를 보내 주신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예수성탄 대축일 낮미사

오늘의 전례: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요한 사도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고 선포합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성을 올립시다.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6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쉐 마

“구원자께서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외치는 하늘 군대의 찬미 소리가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아이, 어깨에 왕권을 지니고 있으며,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사 9,5)이라 불릴 아이가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였음을 온 세상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온 세상은 암흑의 땅에 살며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로 대변되는 악의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큰 빛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집트 탈출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던 멍에와 장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 악의 세력을 치시어 우리 모두를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이사 9,1-4). 그리고 우리를 다윗의 영원한 나라, 곧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될 그분의 나라는 강대하고, 그 나라의 평화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공정과 정의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이사 9,6).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온전히 드러나기 시작한 하늘 나라를 기뻐하며 화답송이 노래하듯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고 노래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해 드디어 하느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 마음에 드는 모든 이가 이 땅에서 평화 가득한 하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영광을 가져다주는 아이, 왕권을 지닌 아이의 탄생 장면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난 아이를 포대에 싸 구유에 누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대고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루카 2,6).

주님의 천사는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자체가 하나의 표징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는 다시 한 번 무엇인가 싸여 누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여 죽은 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뒤 아마포에 싸여 무덤에 누입니다(루카 23,52). 이렇게 보면 포대에 싸여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모든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예수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가 먹을 것이 놓여있어야 할 구유에 놓인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통해 구원에 이른 이들입니다. 또한 그분의 몸을 먹고 사는 이들입니다.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티토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준 그 아기로 인해 모든 불의에서 해방되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하느님 소유의 백성이 된 이들입니다(티토 2,11-14).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며,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티토 2,11).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 곳곳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자의 탄생을 기뻐하기를 희망하며,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성탄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성탄절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이 나누는 기쁜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몇몇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기쁜 성탄 되시기를 빕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신 정겹고 사랑스러운 하느님

불경과 속된 욕망으로 황폐화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들이 하느님의 영광과 지혜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깨달아갈수록 하느님의 배려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구체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표현을 거창하고 요란하게 드러내시지 않고, 아주 정겹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에게 드러내시므로써 인간들이 하느님을 가까이하기에 쉬운 분으로 받아들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탄생하시어 초라하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생동감이 있으신 주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유를 관상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생동감과 사랑스러우신 모습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하러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가는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인간들의 욕심 즉,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마리아

와 요셉은 거처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그동안 여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모두 사라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든든한 힘이 솟아오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거창한 모습은 아니지만 생활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목동들에게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이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정겨운 주님을 만나서 용기를 얻은 목동들의 거친 생활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용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관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용기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정치 지도자들이 저지른 혼란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삶의 근원에서 구원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께서 정겹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오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겹고 사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 김창훈 바오로 신부



복음묵상

충만한 위로

왕으로 나셨다면
고귀한 신분이셨다면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했겠지.
하늘 높이의 별이었다면
구름 위에 앉아만 계셨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했겠지.
끼니 걱정 안 해 본 이가
어찌 밥의 귀함을 알고

감사해보지 않은 이가
어찌 백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 높이 별처럼 떠서
바라보는 세상은
그저 아름답기만 하겠지.
우리의 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손에서 빛나기에
우리는 충만한 위로를 받는다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요한 1,16)

- 임의준 신부